

## 초등학교 학교 폭력의 실태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황희숙 · 임지영\*

(부경대학교 · \*망미초등학교)

### 1. 서론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갈등으로 우리 사회는 갖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여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문제가 학교 폭력이다. 이제 학생들의 학교 폭력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그 위험 수위를 넘어 심각한 가정, 학교,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또한 그 피해자 및 가해자도 중·고등학생을 넘어 초등학생으로 저연령화되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난 2년간 일선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폭력관련 설문조사 결과 교내·외 총 폭행피해 횟수가 1998년 14294건에서 1999년 18573건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폭행피해 횟수가 1998년 3299건에서 1999년 728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폭력의 개념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찾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이란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힘이 강한 아동이나 집단이 힘이 없는 아동에게 단기간, 장기간의 물리적 및 심리적 폭력을 가하는 의도적인 폭력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힘의 불균형에 의한 인간 관계에서 오는 폭력을 말하며 반복적,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폭력을 당한 결과가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학교 폭력으로 간주한다(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1996, p.64). 또한 학교 폭력은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되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까지도 포함된다.

이러한 학교 폭력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부적응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다. 즉,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 아동들이나 폭력을 당하는 피해 아동들은 학교 생활에서 사회·정서적 부적응이나 학습 부적응 현상을 보임은 물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사회적 적응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즉, 학교 폭력을 당한 직후 피해 아동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매우 불안하고 덜 행복해 하

고 덜 만족해하고 스스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학교에서의 가해 아동들은 성인기에 범죄자나 알콜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 아동들도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이 손상되고 억압되며 이것이 아동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의 결여는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권이중, 1997, p.15).

최근 학교 폭력의 추세를 살펴보면 첫째, 학교 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저연령화 되고 있다. 예전에는 청소년 비행이나 폭력을 일으키는 학생이 중·고교생 중심이었으나, 요즘은 그 연령이 연소화되어 초등학생에게까지 파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지역의 확산성이다. 지금까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폭력이 발생하던 것이 점차 확산되어 변두리 지역이나 농촌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셋째, 여학생의 학교 폭력의 증가이다. 학교 폭력은 지금까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나 점차 여학생들의 폭력도 잔인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1996)의 조사 결과 35.3%가 여학생에 의한 폭력으로 보고되었다. 여학생의 폭력의 증가는 전체 학교 폭력의 증가의 주된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넷째, 성인 범죄를 모방하여 폭력이 점차 흉악화 되고 있다. 단순한 학생들간의 폭력이 아니라 불량 씨클과 연계되고 그 위에는 조직 폭력단이 연결되어 조직간의 힘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집단화 경향이다. 청소년 폭력은 2인 이상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년기에는 그 자체가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에 가입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아동들은 그들의 욕구불만을 약한 개인의 힘으로 해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홍재선, 1996, p.7).

지금까지의 학교 폭력에 대한 선행 연구들(곽은자, 1997; 김경안, 1997; 김종미, 1997; 남만희, 1998; 박노희, 1998; 박영관, 1997; 이경자, 1998; 이수화, 1999)의 경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겠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폭력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성별에 따른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서 남자 아동은 주로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여자 아동은 간접적 심리적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셋째, 학교 폭력과 연령의 관계 연구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학교 폭력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의 실태 분석을 통해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학교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나라 초등학교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학교 폭력을 조기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 폭력의 개념

학교 폭력이란 학원 폭력, 학교 주변 폭력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개념 또한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다. 학교 폭력은 일반 폭력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유발되며, 학교 밖의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학교의 구조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이돈희, 1996). 1995년 이후 학교 폭력이 집중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실시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교 폭력의 개념정의를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다. 즉, 하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폭력이 일어난 장소에 관련된 것이다(심응철, 1996). 지금까지의 연구는 학교 폭력을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대부분 가해자의 입장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의 신분이 ‘학생’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폭력의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를 학교 폭력이라고 한정해 정의한다면 성인들이 학생들에게 행하는 모든 폭력까지 포함하게 된다. 반대로 학교 폭력을 폭력의 가해자만이 학생인 경우라고 정의한다면 학생들이 행하는 모든 폭력 곧 학교와는 무관하게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폭력까지 포함하는 것이 된다. 이는 청소년 비행의 일부분인 학생 비행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포함하는 ‘관계’에 중점을 두어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즉 학교 폭력을 “학교라는 장을 통하여 맺어진 관계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폭력 사태”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1996, p.4). 학교를 통하여 생긴 관계란 교사와 학생의 관계,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 나아가서는 중퇴생들과의 관계까지 포함한다.

이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다면, 학교 폭력을 정의하는데 다음의 여섯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폭력의 의미에서 함축되어 있듯이 학교 폭력은 의도적인 폭력 행위이다.

둘째, 힘이 강한 개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나약한 개인을 상대로 하는 힘의 불균형에 의한 인간 관계에서 오는 폭력이다.

셋째, 한 아동이 가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집단에 의한 폭력까지 포함해야 한다.

넷째, 실지로 폭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물리적 폭력 뿐 아니라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폭력을 당한 결과가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학교 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기간, 반복적인 것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폭력행위도 그 결과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학교 폭력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여섯째,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것 등이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뿐 아니라 그 범위를 학교 주변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정의하면 학교 폭력이란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주위, 공원, 등·하교길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힘이 강한 개인이나 집단이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하여 단기간, 장기간 가하는 물리적, 심리적 공격을 의미한다.

## 2. 학교 폭력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초등학교 학교 폭력의 실태를 분석하여 학교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 폭력의 전반적인 추세 및 학교 폭력의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의 특성과 유형, 학교 폭력이 성별, 연령별, 발생 장소들에 따라 어떤 특성을 가지고 발생하는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학교 폭력 추세

최근 학교 폭력의 추세를 살펴보면 첫째, 학교 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저연령화 되고 있다. 예전에는 청소년 비행이나 폭력을 일으키는 학생이 중·고교생 중심이었으나, 요즈음은 그 연령이 연소화되어 초등학생에게까지 파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10대 중반의 청소년들의 폭력 증가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사춘기가 빨리 찾아옴에 따라 생기기 쉬운 반항 등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발견될 수 있는 폭력 양상으로 볼 수 있다(곽은자, 1997, p.15).

둘째, 지역의 확산성이다. 지금까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폭력이 발생하던 것이 점차 확산되어 변두리 지역이나 농촌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셋째, 여학생의 학교 폭력의 증가이다. 학교 폭력은 지금까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나 점차 여학생들의 폭력도 잔인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1996)의 조사 결과 1000여건의 사건 중 35.3%가 여학생에 의한 폭력으로 보고되었다. 여학생의 폭력의 증가는 전체 학교 폭력의 증가의 주된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p.13).

넷째, 성인 범죄를 모방하여 폭력이 점차 흉악화 되고 있다. 단순한 학생들간의 폭력이 아니라 불량 씨클과 연계되고 그 위에는 조직 폭력단이 연결되어 조직간의 힘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집단화 경향이다. 청소년 폭력은 2인 이상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년기에는 그 자체가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에 가입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아동들은 그들의 욕구불만을 약한 개인의 힘으로 해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집단을 이루어 집단적으로 행동하게 된다(홍재선, 1996, p.7). 폭력 집단이 구성되면 조직의 유지를 위해 해마다 새로운 구성원을 끌어들이며 일단 구성원이 되면 탈퇴하기가 매우 어렵고 폭력과 더불어 금품

갈취, 절도, 강간 등의 범죄 행위를 하며 여러 가지 흉기로 무장을 하고 학생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폭력 집단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성장하면서 성인 범죄 집단으로 이동해 가기 때문에 청소년 폭력 집단은 성인 범죄 집단의 하부 연계 조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형사정책연구소, 1991, p.30).

요약하면, 최근 들어 학교 폭력은 가해자 및 피해자가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까지 학교 폭력이 확산되고 여학생 폭력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폭력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여 폭력이 점차 흉악화, 집단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 나. 학교 폭력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의 특성과 유형

학교 폭력의 피해 아동이나 가해 아동은 일반적인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 폭력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학교 폭력에 의한 피해 아동은 특성에 따라 수동적인 피해 아동과 도발적인 피해 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Stephenson & Smith, 1989). 첫째, 수동적인 피해 아동들은 수동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인기가 없고 다른 아동들보다 나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도발적인 피해 아동들은 다른 피해 아동들보다 더욱 능동적이고 자기 주장적이며 자신감이 있고 육체적으로 쉽게 도발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들은 무례한 행동을 해서 가해 아동을 도발한다. 즉 갈등 상황을 쉽게 만들고 폭력을 당하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유형의 피해 아동이다.

가해 아동의 일반적인 특징은 폭력에 대해 보통의 아동들보다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은 물론 힘이 세고 성미가 급하며 충동적이고 타인을 지배하는 데에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입장에 대해 감정이입을 잘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해 아동들은 그들 또래 사이에서 평균 또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자, 1998, p.68)

가해 아동들은 그 특성에 따라 전형적인 가해 아동, 불안한 가해 아동 그리고 가해아동/피해 아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Olweus, 1994) 첫째, 전형적인 가해 아동은 폭력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충동적 성격과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둘째, 불안한 가해 아동은 가해 아동 중에서 가장 자신감이 없고 인기가 낮은 편이며 다른 아동들보다 가정문제가 더 많다. 셋째, 가해 아동/피해 아동이다. 이들은 자신이 학교 폭력의 가해 아동이기도 하고 동시에 피해 아동이기도 한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가해 아동은 아주 소수로서 전형적인 피해 아동보다 신체적으로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며 또래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낮으며 매우 쉽게 화를 내고 또 자주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유형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전형적인 가해 아동과 불안한 가해 아동의 특성은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아동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심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성차와 학교 폭력

학교 폭력과 성차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의 대부분이 남·여 아동간에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hitney와 Smith(1993)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폭력에 더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폭력을 많이 행사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남자 아동은 주로 물리적으로, 여자 아동은 주로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아동은 주로 남자 아동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나, 여자 아동은 여자 아동이나 남자아동 양성에 의해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tephenson과 Smith(1989)은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할 뿐 아니라 동시에 폭력을 더 많이 당하고 있으며,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경우도 남자 아동에게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교 폭력과 성차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를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폭력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서 남자 아동은 주로 가시적인 직접적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여자 아동은 간접적 심리적 폭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연령과 학교 폭력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의 정도가 학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Olweus(1994)의 연구 결과, 초등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동의 비율은 2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3학년의 피해아동 중에서 50%이상이 상급생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itney와 Smith(1993)의 연구 결과는 Olweus의 경우와 유사하게,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아동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아동이 많이 나타나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어지는 경향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학교 폭력의 특성으로 인해 고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저학년 아동들이 상급생에 의해 폭력을 당하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급생에 의한 폭력은 점차 배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종미(1997)의 연구 결과에서는 이와는 달리 학교 폭력의 피해와 연령의 증가와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초등학교의 학교 폭력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학교 폭력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소재 7개 초등학교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각 학교별로 120부씩 총 840부를 배부하였는데 그 중 826부를 회

수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반응의 성실도에 문제가 있는 설문지는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통계에 처리된 설문지는 762부였다.

연구 대상 학생의 특성별 구성 현황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 대상 학생의 특성별 구성 현황

변인	구 분	인원수(%)
성별	남	396 (52.0)
	여	366 (48.2)
학년별	1~2학년	252 (33.1)
	3~4학년	260 (34.1)
	5~6학년	250 (32.8)
전 체		762 (100)

## 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교 폭력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므로, 설문지 구성으로 먼저 ① 학교 폭력의 실태 ② 학교 폭력 후 사후처리 ③ 학교 폭 력에 대한 인식의 3개 영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1996), 이수화(1999), Olweus(1994)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으며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비 설문지를 작성하여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수정·보완하였으며 문항 수를 재조정하여 사용하였다.

## 3. 자료 처리

설문 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는 연구 대상의 특성에 따라 성별 및 학년별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통계처리는 각 문항별 반응빈도에 따라 백분율로 환산하고, 반응자의 변인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여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분석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폭력의 실태

가. 학교생활의 만족도

초등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변인	항목	N	학교 생활이 즐겁다	그저 그렇다	학교 생활이 조금 싫다	학교 생활이 매우 싫다	
			N(%)	N(%)	N(%)	N(%)	
전체		762	417(54.7)	292(38.7)	49(6.4)	4(0.5)	
성별	남	396	216(54.5)	158(39.9)	18(4.5)	4(1.0)	$\chi^2=8.794^*$
	여	366	201(54.9)	134(36.6)	31(8.5)	0	
학년	1~2학년	252	172(68.3)	62(24.6)	18(7.1)	0	$\chi^2=59.343^*$
	3~4학년	260	139(53.5)	94(36.6)	23(8.8)	4(1.5)	
	5~6학년	250	106(42.4)	136(54.4)	8(3.2)	0	

\*p < .05

<표 IV-1>에 의하면 ‘학교 생활이 즐겁다’가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가 38.7%, ‘학교 생활이 조금 싫다’가 6.4%, ‘학교 생활이 매우 싫다’가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교 폭력의 피해 경험 및 가해 경험

학교 폭력의 피해 경험 및 가해 경험 여부를 <표 IV-2>에서 살펴보면, 피해 경험 및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각각 전체 응답자의 39.9%, 24.8%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피해 경험 및 가해 경험이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피해 경험은 3~4학년이, 가해 경험은 5~6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2> 학교 폭력의 피해 및 가해 경험

변인	항목	N	피해 경험			가해 경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N(%)	N(%)		N(%)	N(%)	
전체		762	304(39.9)	458(60.1)		189(24.8)	573(75.2)	
성별	남	396	172(43.4)	224(56.6)	df=1 $\chi^2=4.307^*$	118(29.8)	278(70.2)	$\chi^2=11.028^*$
	여	366	132(36.1)	234(63.9)		71(19.4)	295(80.6)	
학년	1~2학년	252	116(46.0)	136(54.0)	df=2 $\chi^2=48.690^*$	62(24.6)	190(75.4)	$\chi^2=9.154^*$
	3~4학년	260	132(50.8)	128(49.2)		50(19.2)	210(80.8)	
	5~6학년	250	56(22.4)	194(77.6)		77(30.8)	173(69.2)	

\*p < .05

다. 학교 폭력의 피해 유형

학교 폭력의 피해 유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표 IV-3>과 같다.

<표 IV-3> 학교 폭력 피해 유형

변인	항목	N	금품 탈취	신체적폭력	심한욕설,협박	따돌림,놀림	
			N(%)	N(%)	N(%)	N(%)	
전체		304	69(22.7)	120(39.5)	39(12.8)	76(25.0)	
성별	남	172	29(16.8)	94(54.7)	15(8.7)	34(19.8)	$\chi^2=38.611^*$
	여	132	40(30.3)	26(19.7)	24(18.2)	42(31.8)	
학년	1~2학년	116	36(31.0)	42(36.2)	10(8.7)	28(24.1)	$\chi^2=25.695^*$
	3~4학년	132	30(22.7)	60(45.5)	16(12.1)	26(19.7)	
	5~6학년	56	3(5.4)	18(32.1)	13(23.2)	22(39.3)	

\*p < .05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총 응답자 중 ‘신체적 폭력’이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따돌림, 놀림’이 25.0%, ‘금품 탈취’가 22.7%, ‘심한 욕설이나 협박’이 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남학생은 신체적인 폭력을 가장 높게 반응한 반면에 여학생은 심한 따돌림과 놀림을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둘째, 학년별로는 1~4학년은 신체적 폭력을, 5~6학년은 따돌림이나 놀림을 가장 높게 반응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

학교 폭력이 주로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표 IV-4>에서 살펴보면 학생들은 총 응답자중 63.2%가 '학교 안'이라고 가장 높게 반응했으며, 길거리, 학원, 오락실 순으로 반응하였으며 각 하위변인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

변인	항목	N	학교안	길거리	학원	오락실	놀이터	
			N(%)	N(%)	N(%)	N(%)	N(%)	
전체		304	192(63.2)	79(26.0)	16(5.3)	12(3.0)	5(1.6)	
성별	남	172	108(62.8)	43(25.0)	12(7.0)	8(4.7)	1(0.6)	$X^2=5.587$
	여	132	84(63.6)	36(27.3)	4(3.0)	4(3.0)	4(3.0)	
학년	1~2학년	116	71(61.2)	34(29.3)	4(3.4)	5(4.3)	2(1.7)	$X^2=9.544$
	3~4학년	132	85(64.4)	29(22.0)	12(9.1)	4(3.0)	2(1.5)	
	5~6학년	56	36(64.3)	16(28.6)	0	3(5.4)	1(1.8)	

마.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학교 안의 장소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표 IV-5>와 같다. 총 응답자중 53.4%가 '교실'이라고 가장 높게 반응하였으며 운동장, 뒤뜰, 화장실, 복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은 운동장, 여학생은 교실에 가장 높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학교안의 장소

변인	항목	N	교실	화장실	뒷뜰	복도	운동장	기타	
			N(%)	N(%)	N(%)	N(%)	N(%)	N(%)	
전체		194	103(53.4)	13(6.7)	18(9.3)	11(5.7)	49(24.9)	0	
성별	남	108	37(34.6)	7(6.5)	14(13.1)	5(4.7)	45(41.1)	0	$X^2=5.587$
	여	86	66(76.7)	6(7.0)	4(4.7)	6(7.0)	4(4.7)	0	
학년	1~2학년	72	42(58.3)	9(12.5)	2(2.8)	6(8.3)	13(18.1)	0	$X^2=9.544$
	3~4학년	86	42(48.8)	4(4.7)	10(11.6)	2(2.3)	28(32.6)	0	
	5~6학년	36	19(54.3)	0	6(17.1)	3(8.6)	7(20.0)	0	

바. 학교 폭력이 주로 일어나는 시간

학교 폭력이 주로 일어나는 시간을 살펴보면 <표 IV-6>과 같다. 먼저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시간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5.7%가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가장 높게 반응하였으며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학교 폭력이 주로 일어나는 시간

변인	항목	N	등·하교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교 후	청소시간	
			N(%)	N(%)	N(%)	N(%)	
전체		304	31(10.2)	139(45.7)	119(39.1)	15(4.9)	
성별	남	172	16(9.3)	72(41.9)	74(43.0)	10(5.8)	$\chi^2=3.748$
	여	132	15(11.4)	67(50.8)	45(34.1)	5(3.8)	
학년	1~2학년	116	10(8.6)	44(37.9)	53(45.7)	9(7.8)	$\chi^2=12.429$
	3~4학년	132	11(8.3)	67(50.8)	50(37.9)	4(3.0)	
	5~6학년	56	10(17.9)	28(50.0)	16(28.6)	2(3.6)	

사. 학교 폭력 가해학생의 유형

학교 폭력 가해학생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7>과 같다.

<표 IV-7> 학교폭력을 행사 한 사람의 유형

변인	항목	N	같은 반 학생	같은 학년 학생	같은 학교 상급생	다른학교 학생	중고등학생	
			N(%)	N(%)	N(%)	N(%)	N(%)	
전체		304	139(45.7)	26(8.6)	85(28.0)	14(4.6)	40(13.2)	
성별	남	172	59(32.3)	10(5.8)	65(37.8)	12(7.0)	26(15.1)	$\chi^2=34.457^*$
	여	132	80(60.6)	16(12.1)	20(15.2)	2(1.5)	14(10.6)	
학년	1~2학년	116	42(36.2)	8(6.9)	46(39.7)	12(10.3)	8(6.9)	$\chi^2=55.157^*$
	3~4학년	132	67(50.8)	12(9.1)	37(28.0)	2(1.5)	14(10.6)	
	5~6학년	56	30(53.6)	6(10.7)	2(3.6)	0	18(32.1)	

\*p < .05

학교 폭력을 ‘같은 반 학생’에게 당했다는 반응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같은 학교 상급생’이 28.0%, ‘중·고등학생’이 13.2%, ‘같은 학년 학생’이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성별로는 남학생은 같은 학교 상급생으로부터, 여학생은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둘째, 학년별로는 1~2학년은 같은 학교 선배로부터 3~6학년은 같은 반 친구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 학교 폭력 가해학생의 수

학교 폭력 가해학생의 수를 알아본 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 학교폭력을 행사 한 사람의 수

변인	항목	N	남자아이 1명	남자아이 2명 이상	여자아이 1명	여자아이 2명 이상	남자, 여자 아이 혼성	
			N(%)	N(%)	N(%)	N(%)	N(%)	
전체		304	136(44.7)	101(33.2)	12(3.9)	43(14.1)	12(3.9)	
성별	남	172	97(56.4)	59(34.3)	0	8(4.7)	8(4.7)	$X^2=17.434^*$
	여	132	39(29.5)	42(31.8)	12(9.1)	35(26.5)	4(3.0)	
학년	1~2학년	116	56(48.3)	29(25.0)	6(5.2)	17(14.7)	8(6.9)	$X^2=53.547^*$
	3~4학년	132	54(40.9)	51(38.6)	6(4.5)	17(12.9)	4(3.0)	
	5~6학년	56	26(46.4)	21(37.5)	0	9(16.1)	0	

\*p < .05

전체 응답자중 44.7%가 ‘남자 아이 1명’으로 가장 높게 반응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남자아이 2명 이상’이 33.2%, ‘여자아이 2명이상’이 14.1%, ‘남자, 여자아이 혼성’이 3.9%, ‘여자아이 1명’이 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은 남자 아이 1명이라는 반응이 가장 높은 반면에, 여학생은 남자 아이 2명으로 가장 높게 반응하여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를 <표 IV-9>에서 살펴보면 총 응답자의 33.9%가 ‘건방져서’라고 가장 높게 반응하였으며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남학생은 건방져서가 가장 높은 반면에 여학생은 잘난 체를 하기 때문예를 가장 높게 반응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년별로는 1~2학년은 나를 무시해서가 가장 높은 반면에 3~4학년은 잘난 체

하기 때문에 5~6학년은 건방져서가 가장 높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9>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

변인	항목	N	건방져서	나를 무시해서	잘난 체 해서	이유도 없이	기타	
			N(%)	N(%)	N(%)	N(%)	N(%)	
전체		189	64(33.9)	51(27.0)	53(28.0)	16(8.5)	5(2.6)	
성별	남	118	44(37.3)	30(25.4)	29(24.6)	11(9.3)	4(3.4)	$\chi^2=3.648$
	여	71	20(28.2)	21(29.6)	24(33.8)	5(7.0)	1(1.4)	
학년	1~2학년	62	18(29.0)	25(40.3)	12(19.4)	4(6.5)	3(4.8)	$\chi^2=18.841^*$
	3~4학년	50	18(36.0)	13(26.0)	18(36.0)	1(2.0)	0	
	5~6학년	77	28(36.4)	13(16.9)	23(29.9)	11(14.3)	2(2.6)	

\*p < .05

## 2. 학교 폭력 후의 사후 처리

### 가. 학교 폭력을 당한 후의 행동

학교 폭력을 당한 후의 행동을 <표 IV-10>에서 살펴보면 학교 폭력을 당한 후 학교 폭력을 알린 학생은 56.6%로 알리지 않은 학생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 반응을 변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더 많이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학교 폭력을 당한 후의 행동

변인	항목	N	알림	알리지 않음	
			N(%)	N(%)	
전체		304	172(56.6)	132(43.4)	
성별	남	172	87(50.6)	85(49.4)	$\chi^2=5.800^*$
	여	132	85(64.4)	47(35.6)	
학년	1~2학년	116	78(67.2)	38(32.8)	$\chi^2=9.094^*$
	3~4학년	132	68(51.5)	64(48.5)	
	5~6학년	56	26(46.4)	30(53.6)	

\*p < .05

나. 학교 폭력을 당한 후 알리지 못한 이유

학교 폭력을 당한 후 알리지 못한 이유를 <표 IV-11>에서 살펴보면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31.3%로 가장 높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째, 성별로는 남학생은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은 반면에 여학생은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와 가해 학생이 무서워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년별로 살펴보면 1~2학년은 야단을 맞을까봐를 가장 높게 반응한 반면에 3~4학년은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5~6학년은 창피해서를 가장 높게 반응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I-11> 학교 폭력을 당한 후 알리지 못한 이유

변인	항목	N	잘 아는 사이여서	야단을 맞을지도 몰라서	창피해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가해학생이 두려워서	
			N(%)	N(%)	N(%)	N(%)	N(%)	
전체		132	20(15.2)	27(20.5)	20(15.2)	41(31.1)	24(18.2)	
성별	남	85	13(15.3)	19(22.4)	12(14.1)	29(34.1)	12(14.1)	$\chi^2=3.479$
	여	47	7(14.9)	8(17.0)	8(17.0)	12(25.5)	12(25.5)	
학년	1~2학년	38	2(5.3)	11(28.9)	6(15.8)	9(23.7)	10(26.3)	$\chi^2=22.136^*$
	3~4학년	64	14(21.9)	10(15.6)	4(6.3)	26(40.6)	10(15.6)	
	5~6학년	30	4(13.3)	6(20.0)	10(33.3)	6(20.0)	4(13.3)	

\*p < .05

다. 학교 폭력을 당한 후 알린 대상

학교 폭력을 당한 후 알린 대상을 <표 IV-12>에서 살펴보면 총 응답자의 53.5%가 ‘부모님’으로 가장 높게 반응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 담임 선생님’, ‘친구’가 20.9%, ‘형제·자매’가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성별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부모님에게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부모님, 선생님, 친구 순으로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부모님, 친구, 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별로는 1~2학년, 3~4학년은 상담 대상으로 부모님을 가장 높게 반응하였으나 5~6학년은 친구라고 가장 높게 반응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2> 학교 폭력을 당한 후 알린 사람

변인	항목	N	부모님	학교담임 선생님	친구	형제,자매	기타	
			N(%)	N(%)	N(%)	N(%)	N(%)	
전체		172	92(53.5)	36(20.9)	36(20.9)	2(1.2)	6(3.5)	
성별	남	87	43(49.4)	21(24.1)	15(17.2)	2(2.3)	6(6.9)	$\chi^2=17.434^*$
	여	85	49(57.6)	15(17.6)	21(24.7)	0	0	
학년	1~2학년	78	49(62.8)	18(23.1)	9(11.5)	0	2(2.6)	$\chi^2=10.468^*$
	3~4학년	68	41(60.3)	14(20.6)	11(16.2)	2(2.9)	0	
	5~6학년	26	2(7.7)	4(15.4)	16(61.5)	0	4(15.4)	

\*p < .05

라. 학교 폭력을 알린 후의 상황 변화

학교 폭력을 알린 학생을 대상으로 알린 후의 상황 변화를 <표 IV-13>에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50.0%가 ‘조금 해결되었다’로 가장 높게 반응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가 44.2%, ‘보복을 당했다’가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을 변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성별로는 남학생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를 가장 높게 반응한 반면에 여학생은 조금 해결되었다를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둘째, 학년별로는 1~2학년, 3~4학년은 조금 해결되었다가 가장 높은 반면에 5~6학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3> 학교 폭력을 알린 후의 상황

변인	항목	N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조금 해결되었다	보복을 당했다	
			N(%)	N(%)	N(%)	
전체		172	76(44.2)	86(50.0)	10(5.8)	
성별	남	87	41(47.1)	38(43.7)	8(9.2)	$\chi^2=5.214$
	여	85	35(41.2)	48(56.5)	2(2.4)	
학년	저학년	78	33(42.3)	39(50.0)	6(7.7)	$\chi^2=6.423$
	중학년	68	27(39.7)	37(54.4)	4(5.9)	
	고학년	26	16(61.5)	10(38.5)	0	

\*p < .05

마. 학교 폭력을 당한 후의 느낌

학교 폭력을 당한 후의 느낌을 <표 IV-14>에서 살펴보면 총 응답자 중의 50.3%가 ‘복수하고 싶었다’로 가장 높게 반응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불안하고 두려웠다’가 20.4%, ‘학교가기가 무서웠다’가 16.8%,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가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성별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복수하고 싶었다라는 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별로는 복수하고 싶었다라는 반응은 3~4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에 가기가 무서웠다라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4> 학교 폭력을 당한 후의 느낌

변인	항목	N	복수하고 싶었다	불안하고 두려웠다	학교가기가 무서웠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N(%)	N(%)	N(%)	N(%)	
전체		304	153(50.3)	62(20.4)	51(16.8)	38(12.5)	
성별	남	172	99(57.6)	34(19.8)	17(9.9)	22(12.8)	$\chi^2=15.434^*$
	여	132	54(40.9)	28(21.2)	34(25.8)	16(12.1)	
학년	1~2학년	116	43(37.1)	28(24.1)	33(28.4)	12(10.3)	$\chi^2=37.674^*$
	3~4학년	132	88(66.7)	18(13.6)	12(9.1)	14(10.6)	
	5~6학년	56	22(39.3)	16(28.6)	6(10.7)	12(21.4)	

\*p < .05

3. 학교 폭력에 대한 아동의 인식

가.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한 <표 IV-15>에 의하면 총 응답자 중에서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를 반응한 학생이 8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이해한다’가 8.4%, ‘조금 나쁘다고 생각한다’가 6.3%, ‘별다른 생각이 없다’가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나쁘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학년이 높아질수록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반응한 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

변인	항목	N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	조금 나쁘다고 생각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이해한다	별다른 생각이 안 든다	
			N(%)	N(%)	N(%)	N(%)	
전체		762	641(84.1)	48(6.3)	64(8.4)	9(1.2)	
성별	남	396	311(78.5)	26(6.6)	50(12.6)	9(2.3)	$\chi^2=29.010^*$
	여	366	330(90.2)	22(6.0)	14(3.8)	0	
학년	1~2학년	252	204(81.0)	28(11.1)	20(7.9)	0	$\chi^2=40.660^*$
	3~4학년	260	211(81.2)	18(6.9)	22(8.5)	9(3.5)	
	5~6학년	250	226(90.4)	2(0.8)	22(8.8)	0	

\*p < .05

나.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보았을 때의 기분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보았을 때의 기분을 <표 IV-16>에서 살펴보면 총 응답자의 39.9%가 ‘폭력을 행사한 친구를 때려 주고 싶었다’로 가장 높게 반응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무서웠다’가 36.5%,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가 21.3%, ‘기분이 좋았다’가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성별로는 남학생은 폭력을 행사한 학생을 때려주고 싶었다를, 여학생은 무서웠다를 가장 높게 반응하여 남녀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년별로는 1~2학년, 5~6학년은 무서웠다를 가장 높게 반응한 반면에 3~4학년은 폭력을 행사한 학생을 때려주고 싶었다를 가장 높게 반응하여 학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보았을 때의 기분

변인	항목	N	무서웠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기분이 좋았다.	폭력을 행사한 학생을 때려주고 싶었다.	기타	
			N(%)	N(%)	N(%)	N(%)	N(%)	
전체		762	278(36.5)	162(21.3)	14(1.8)	304(39.9)	4(0.5)	
성별	남	396	117(29.5)	104(26.3)	9(2.3)	166(41.9)	0	$\chi^2=26.608^*$
	여	366	161(44.0)	58(15.8)	5(1.4)	138(37.7)	4(1.1)	
학년	1~2학년	252	116(46.0)	50(19.8)	4(1.6)	78(31.0)	4(1.6)	$\chi^2=62.803^*$
	3~4학년	260	76(29.2)	34(13.1)	6(2.3)	144(55.4)	0	
	5~6학년	250	86(34.4)	78(31.2)	4(1.6)	82(32.8)	0	

\*p < .05

다.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보았을 때의 행동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보았을 때의 행동을 <표 IV-17>에서 살펴보면 ‘부모와 학교에 신고한다’를 반응한 학생이 6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를 도와 맞대어 싸우겠다’가 17.6%, ‘내 일이 아니므로 모르는 척 하겠다’가 10.5%, ‘기타’가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부모와 학교에 신고하겠다는 반응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고하겠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7>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보았을 때의 행동

변인	항목	N	부모, 학교에 신고하겠다.	친구를 도와 맞대어 싸우겠다.	모르는 척 하겠다.	기타	
			N(%)	N(%)	N(%)	N(%)	
전체		762	514(67.5)	134(17.6)	80(10.5)	34(4.5)	
성별	남	396	234(59.1)	88(22.2)	58(14.7)	16(4.0)	$\chi^2=37.275^*$
	여	366	280(76.5)	46(12.6)	22(6.0)	18(4.9)	
학년	1~2학년	252	162(64.3)	52(20.6)	24(9.5)	14(5.6)	$\chi^2=23.262^*$
	3~4학년	260	168(64.6)	56(21.5)	24(9.3)	12(4.6)	
	5~6학년	250	184(73.6)	26(10.4)	32(12.8)	8(3.2)	

\*p < .05

라. 학교 폭력에 대한 책임

학교 폭력에 대한 책임을 <표 IV-18>에서 살펴보면 총 응답자중 34.1%가 ‘어른들 모두’라고 가장 높게 반응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이 27.0%, ‘가족들’이 20.7%, ‘경찰관 아저씨’가 13.6%, ‘우리들’이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별로는 1~4학년은 어른들 모두라고 가장 높게 반응한 반면에 5~6학년은 학교 선생님이라고 가장 높게 반응하여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8> 학교 폭력에 대한 책임

변인	항목	N	학교 선생님	경찰관 아저씨	가족들	어른들 모두	우리들	
			N(%)	N(%)	N(%)	N(%)	N(%)	
전체		762	206(27.0)	104(13.6)	158(20.7)	260(34.1)	34(4.5)	
성별	남	396	106(26.8)	46(11.6)	78(19.7)	152(38.4)	14(3.5)	$\chi^2=8.922$
	여	366	100(27.3)	58(15.8)	80(21.9)	108(29.5)	20(5.5)	
학년	1~2학년	252	56(22.2)	42(16.7)	64(25.4)	76(30.2)	14(5.6)	$\chi^2=53.216^*$
	3~4학년	260	56(21.5)	46(17.7)	34(13.1)	114(43.8)	10(3.8)	
	5~6학년	250	94(37.6)	16(6.4)	60(24.0)	70(28.0)	10(4.0)	

\*p < .05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학교 폭력 실태 분석을 통하여 학교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해 본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다고 반응한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 폭력의 피해 경험 및 가해 경험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라 할 수 있으며 남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여학생들의 관계보다 더 어렵고 난폭하며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년별로는 피해경험은 3~4학년이 많고 가해경험은 5~6학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폭력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은 신체적 폭력이, 여학생은 따돌림이나 놀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학년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폭력보다 정신적 폭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학년은 체격이 왜소하고 저항 능력이 약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고학년들의 폭행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학년이 점점 증가할수록 학교 폭력이 지능적이며 한층 더 교묘한 형태의 폭력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학교 폭력을 당한 장소로는 학교 안이라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시간은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이라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같은 반의 학생이라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일상적인 학교 생활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만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째, 학교 폭력을 당한 후 학교 폭력을 알린 경우가 알리지 않는 경우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이 신고하는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를 한 후 학교폭력의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학교 폭력의 해결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관심 있는 지도를 통해 조기에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곱째, 학교 폭력을 당한 후의 상담자로 부모님을 가장 높게 반응하였으며 문제 해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교 담임 선생님의 반응이 낮아 학교 폭력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학교 폭력을 당한 후의 정서적 반응으로 불안이나 공포보다는 복수하고 싶었다라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학교 폭력은 또 다른 학교 폭력을 낳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이 학교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홉째, 초등학생들은 학교 폭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학교 폭력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어른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설문 결과 학생들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학교 생활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 2.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교 학교 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 12학급, 고등학교 9학급 이상의 학교에 진로 상담 및 청소년 문제 상담 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초등학교 학교폭력도 심각한 수준이므로 초등학교에도 각 학교마다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둘째,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학생 지도에 필요한 감정통제 훈련, 의사소통 훈련,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 심성 계발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인성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 및 생활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 폭력의 심각한 피해자가 되고 있으므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력방지 및 대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집중적인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 기관을 적극 지원, 육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전문 민간 상담 기관을 최소한 광역시나 도 단위로 1개씩이라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요즘 사이버 상담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1996)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교 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 부모가 자녀의 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어머니회를 통한 학부모 연수를 개최하여 자녀 교육 방법과 가정의 역할 기능에 대한 이론 및 실천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 내외에 대한 순회활동의 강화가 요구된다. 초등학교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내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활동을 통한 학생지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학교교육 당국과 행정 당국은 학교 환경 정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보건법상 이전·폐쇄 대상 업소를 단속하고 있으나 그 활동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 주변에 있는 비교육적인 유해 환경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 및 지도대책이 요구된다.

여섯째,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있는 청소년 관련 정부 부처(교육인적자원부, 문화체육부, 내무부, 법무부 등)가 참여한 정부 차원의 상설적인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본부 및 교사, 청소년 관련 시민 단체, 학부모 대표가 참여한 상설적이고 범국민적인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범국민 운동을 벌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IV. 참고문헌

- 곽은자, 청소년 폭력 행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 효성 카톨릭 대학교, 1997.
- 권이중, 학교폭력의 발생 배경과 지도 방안, 한국교육사회학회 120차 학술세미나 자료집, 1997.
- 김경안, 한국 학교폭력의 실태 분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97.
- 김종미,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의 성격과 유발요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97, 10(2), pp.17-32.
- 김준호,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
- 남만희, 초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학교 폭력의 실태분석과 대처방안,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1998.
- 박노일, 초등학교 학교 폭력 실태 지각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의견 차이, 석사학위 논문, 대구효성대학교, 1998.
- 박영관,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7.
- 심응철, 학교 폭력의 근원, 제 4차 청소년 정책토론회 한국 청소년 교육 연구소 자료집, 1996.
- 양성목,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97.
- 이경자, 학교폭력의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1998.
- 이돈희, 학교 폭력 : 현실과 대책. 제 4차 청소년정책토론회 한국 청소년 교육 연구소 자료 집, 1996.
- 이수화, 초등학교 학교 폭력 실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1999.
- 이재창, 학교 폭력 그 원인과 대책, 한국 청소년, 통권 제 18호, 서울, 1995.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 한울림, 1996.
- 청소년 대화의 광장, 학교 폭력의 피해 실태와 대책 마련, 서울 :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6.
- 최자은, 청소년 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8.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심리학, 서원, 1996.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문제론, 서원, 1996.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문화론, 서원, 1996.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지도론, 서원, 1996.
- 형사정책연구소, 한국 청소년의 폭력 실태 분석, 1999.

- 홍재선,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대처방안,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96.
- 황정규, 한국 청소년 정신 건강. 서울 :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1992.
- Kerbs D. L. & Miller, D. T., Altruism and aggression, In G. Lindzey & E.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3rd ed.), NY: Random House, 1995.
- Olweus D., Aggression and peer acceptance in adolescent boy : Two short-term longitudinal studies of ratings 1977, 이동진 역;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문제, 삼진각, 1996.
- Olweus D.,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 Bullying at school, In H. Frude & H. Gault (Eds.), *Disruptive behaviors in schools*, NY : Willy, 1984.
- Sampson R. J. & Lauritsen, J. L., Deviant lifestyles, proximity to crime, and the offender-victim link in person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990, 27(2), pp.110-139.
- Stephenson P. & Smith, D., Bullying in the junior school, In D. P. Tattum & D. A. Lane (Eds), *Bullying in Schools*, NY : Freeman, 1989.
- Whitney, L. & Smith, P. K., A server of the nature and extent of bulling in junior and secondary schools, *Educational Research*, 1993, 35, pp.3-5.

#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of Elementary School Violence and Its Resolution

Hee Sook HWANG · Ji Young LI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Mangmi Elementary School)

## Abstract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been increasing and what is worse, it has been more violent and crue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elementary school violence and to propose the strategies to prevent it.

Subjects were 762 male and fema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Pusan. They were asked to rate the questionnaire concerning school violence. The statistical method of this was verified by X<sup>2</sup>.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gender difference in degrees of school violence. Male students were more exposed to offensive and violent circumstances than female students. Second, there was grade difference in degrees of school violence. 3rd and 4th students were more vulnerable than other grade students. Third, school violence took place in a classroom, usually on break time or lunch time. Forth, half of the students reported to parents and teachers when they or their friends were assaulted. Fifth, the reasons of not reporting the school violence was due to fear of the assailant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